

대학생의 그릿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은희¹, 최인선², 정철상^{3*}

¹호서대학교 인재개발학과 박사과정, ²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외래교수, ³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Grit on Their Self-determination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h eun heui¹, Choi in sun², Jung chul sang^{3*}

¹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oseo University Ph. D

²Department of Youth Cultural Counseling, Hoseo University A Foreign Professor

³Department of Youth Cultural Counseling, Hoseo University Professor

요약 사회 초년생을 준비하는 대학생 시기는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게 성공적인 진로와 삶을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서 자신의 인생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결과와 방향의 안목을 가지고 성공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동적 판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개인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대학생의 그릿과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도의 대전, 세종, 천안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그릿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그릿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그릿은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그릿과 자기결정성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동기적 변인들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격의 자기결정성을 키워줄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self-determination in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ensuring the positive development required for college students to understand their collective, as well as their individual, abilities. This study comprised college students sampled from three c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Daejeon, Sejong, and Cheona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MOS 22.0 statistical softw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rmness of mind and courage in the face of hardship (based on the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at resilience. Second, this grit in college student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self-determination. Third, the resilience from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 revealed that resilien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ir self-determination. Fourth, we found after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self-determination of college students that resilience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self-determin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empirical grounds for self-determination in college student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al variables affecting their self-determination.

Keywords : College Students, Grit, Self-Determination, Resilience,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Jung chul sang(Hoseo Univ.)

email: campkorea@hanmail.net

Received October 18, 2019

Revised November 21, 2019

Accepted January 3,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0

1. 서론

사회 초년생을 준비하는 대학생 시기의 학생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청년 실업문제는 대학이 분위기도 바꾸고 있으며, 졸업을 잠시 미루는 이른바 대학 5학년생과 휴학 후 취업을 위해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인턴십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실업에 의한 장기적인 취업준비행동은 개인의 경제적 손실과 재정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더불어 생산 잠재력 손상, 자존감 상실이 따르는 등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아실현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게 성공적인 진로와 삶을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서 자신의 인생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 결과와 방향의 안목을 가지고 성공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동적 판단이 필요하다.

성공적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노력, 끈기, 인내 등과 같은 개인의 강점을 장기간 수행하여 높은 성취결과를 얻는 심리학 개념인 '그릿(Grit)'이라는 개념을 들 수 있다.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의 일환으로 그릿은 개인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열정과 지속성을 뜻하며, 개인의 성취를 위한 영향적 요인으로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다[1]. 정현 외(2018)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성취를 위해 목표를 지정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릿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2]. 즉, 그릿의 영향력은 개인이 뚜렷한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장기간 노력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개인의 목표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고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그릿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과정에서는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목표설정이나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게 해주는 능력을 나타내는 동기 구인으로서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이 있는데, 이는 자신에 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며, 필요에 의해 목표를 수정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결정성 동기 가운데 특히 중요한 요인은 자율성(autonomy)으로, 자율성을 보장받는 상황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발휘되며 더 나아가 성공적인 목표 성취로 이어지게 된다[3]. 자기결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는 보상이나 처벌 등과 같은 외재적 조절보다는 관계 추구나 성장과 같은 내재적 조절에 따른다는 연구결

과가 있다[3].

그릿은 또한 개인의 회복탄력성과도 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주환(2013)은 그릿을 형성하고 있는 요인 중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어려운 역경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릿을 높일 수 있는 속성으로 보았다[4]. 즉, 어렵거나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은 오랫동안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유지해야 하는 그릿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된다[5-6].

또한 회복탄력성은 자기결정성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자기결정성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동기부여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자율성이라고 하였다. 개인이 어떠한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할 때 삶의 주인임을 느끼므로 자율성 수준이 높은 사람일 경우 어떤 일에서든 자기결정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3]. 이를 통해 기본적인 심리욕구의 요인 가운데 하나인 자율성이 회복탄력성과 핵심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릿과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개인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성을 잘 이해하고 어떠한 목표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를 지속시키기 위한 실제적 필요 요인인지를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그릿

그릿은 미국의 Duckworth 외(2007)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써, 개인의 강점을 통한 성장 및 발달에 관심을 가지는 긍정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1]. 그릿의 배경이 되는 긍정심리학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이를 어떻게 극복 가능한가에 관한 병리학적 관심으로부터 우리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관심으로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7]. 즉 사람들의 내면에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되면 부정

적인 정서는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행복을 증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학습량 축소, 시험불안 해소 등으로 학습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학습에 의해 행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함을 제시한다.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끈기와 열정’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다. 그것의 특징을 보면 그것은 학년과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탁월한 성취에서 IQ나 자기통제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수준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그것이 높은 사람이 뚜렷한 장기적인 성취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 왔기 때문이다[1]. 따라서 다수의 연구를 통해 그것이야말로 학생의 성적은 물론 그 밖의 다양한 성취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 요인임을 입증했다[1].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것을 개념화한 김주환(2013)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이 목표로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이 가능한 마음의 근력이라 표현하였으며[4], 김미숙 외(2015)는 그것을 대체로 결단, 불굴의 의지, 용기 등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8]. 이처럼 그것을 표현하는 말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란(2015)의 연구[9]에 근거하여 그것을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으로 정의한다. 노력의 꾸준함은 목표를 위해 감내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이고, 관심의 일관성은 얼마나 장기간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추구하는지를 의미한다.

2.2 자기결정성

심리학에서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동기(motivation)와 관계된 핵심적인 이론이다. 여기서 동이란 인간이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인 요인인데,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된다. 먼저 외적 동기는 인간이 행위를 실제로 행하는 요인을 벌이나 보상과 같이 개인 외부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내적 동기는 자신의 즐거움과 흥미와 같이 개인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자기결정성은 학업 상황은 물론 인간생활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동기 및 행위를 이해하는 데 적용된다.

이 자기결정성 이론은 Deci(1975)의 유기적 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과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을 통합 및 체계화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 접근을 취한다[10]. 또한 인간이 변증법적 측면에서 정의 개념인 개인의 정신적인 측면, 반의 개념인 다른 사람과 사회 집단을 관계하여 합을 이루려는 기본적인 경향성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 자신과 타인, 사회를 통합하려는 경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11].

이러한 자기결정성이 형성되는 이론의 기본 가정과 정의를 살펴보면 자기결정성의 기본 가정은 ‘자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내재동기가 핵심이 된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이 자기결정적이어야 하는데, 내재동기 연구자들은 자율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통제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Ryan과 Connell(1989)은 자기결정성이란 개인의 행위에 있어 선택의 자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12], 외적 통제에 따라 행위 하기보다는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행위를 선택하는 자기 주도에 의한 자유라고 설명하였다[13]. 이는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지각하는지, 얼마나 행동을 조절 및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내재동기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14].

이에 따라 자기결정성은 외적인 강요, 힘과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었다[15].

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환경에 적응,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5]. 구체적으로 ‘회복’, ‘성장’은 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요인이며, 이들은 또한 여러 능력들로 구성된다. 그리하여 회복탄력성은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접근 방식에 따라 개념적 정의가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Reivich와 Shatte(2003)의 따르면 회복탄력성이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16].

회복탄력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구자마다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이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해리와 조한익(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크게 학교생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등의 외적 요인과 개인의 분석력 및 기질을 포함한 인지 능력과 통제력, 성격 등 내부에서

오는 자원인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다고 하였으며[17], Cowen 외(1997)는 외적 요인을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받지 않고 여러 의사소통능력으로 주위에 도움 요청을 잘할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18]. 또한 흥은숙(2006)의 연구에서는 공감 및 소통 능력 등, 사회성 역시 회복탄력성의 핵심 요인임을 주장하였다[19].

이렇게 회복탄력성은 환경적 자원과 내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하는 반면에, 순수 개인 내적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릿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에 대해 김현주(2015)의 연구에서 언급한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자원으로부터 이루어진 회복탄력성을 다루고자 한다.

2.4 그릿, 회복탄력성,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

개인이 어떠한 일에 관해 스스로 결정을 할 때 삶의 주인임을 느끼므로 자율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일에서든 자기결정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3]. 이를 통해 자율성이 그릿의 흥미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판 그릿 척도 타당성 검증에서 자율적인 학습동기와 초등학생의 그릿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 동기요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통제소재는 내적소재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결핍됨 혹은 실패를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고 보다 많은 노력을 지속하게 하여[21], 이는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2].

회복탄력성은 장기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는 그릿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된다. 이미란 외(2017)의 연구에서는 그릿과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및 매개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 그릿과 회복탄력성의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그릿은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나타냈다[23]. 백유성(2015)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조직몰입과의 상관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는 그릿이 몰입과도 같은 성향을 보인다는 의미 안에서 회복탄력성과 그릿의 관계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24]. 또한 그릿과 성실성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 자기결정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릿은 자기결정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자기결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34].

또한, 자기결정성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에 따라 행위를 유발시키는 힘의 원천이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긍정적인 정서, 개인의 회복 능력과 같은 역할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25]. 이러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회복탄력성은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고, 성취 지향적이며, 긍정적인 가치를 내재화하고, 책임감 및 적절한 대처기술, 자기유능감과 내적 통제소재와 같은 것들이다[26]. 즉, 회복탄력성과 내재적 동기에 대한 상관관계 입증과 내재적 동기와 자기결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27]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자기결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한가에 관한 선행요인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력과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경으로부터 극복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26].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성취 지향적인 행동을 위해 뚜렷한 생애목적을 가지고 긍정적인 가치를 내재화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대처기술과 책임감을 나타낼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인 것으로 자기결정성에 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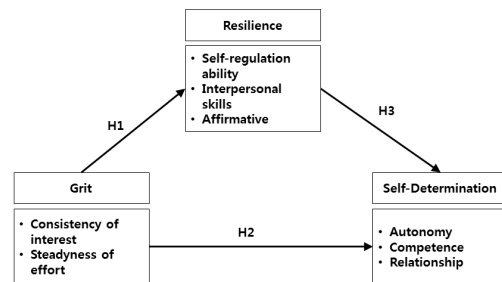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H1. 대학생의 그릿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대학생의 그릿은 자기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자기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대학생의 그릿과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충청도 지역의 천안, 대전, 세종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8일부터 2019년 6월 21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오프라인 방법을 통하여 확률적 표집방법인 단순 무선 표집(simple random sampling)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35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352(99.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전체 미응답이나, 설문 문항에 50%가 넘는 문항에 미응답한 자료는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12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사용한 설문지는 총 340(95.8%)부이다.

자료 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관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측정항목의 개념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범칙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고, 신뢰와 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그릿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그릿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 외(2007)가 개발[1]한 Original Grit Scale(Grit-O)를 이정립과 권대훈(2016), 김희은(201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2, 28]. 그릿은 '관심의 일관성', '노력의 꾸준함'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요인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릿의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 방식이다. 그릿의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 투지와 열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을 살펴보면, 관심의 일관성은 0.744, 노력의 꾸준함은 0.713, 그릿 전체는 0.799로 나타났다.

3.3.2 자기결정성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측정을 위하여 김은주(2007)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및 제작한 이지혜(2013)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29-30]. 각 항목은 Likert식 5점 척도 방식이며 자율성 6문항과 유능감 3문항, 그리고 관계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을 살펴보면, 자율성 0.727, 유능감 0.608, 관계성 0.778, 자기결정성 전체는 0.828로 나타났다.

3.3.3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측정을 위해 신우열 외(2009)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김현주(2015)가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5, 31]. 대학생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회복탄력성 척도의 문항은 총 27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회복탄력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잘 버티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을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은 0.830, 대인관계능력은 0.915, 긍정성은 0.825, 회복탄력성 전체는 0.909로 나타났다.

3.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석 결과 남성 55.0%(187명), 여성 45.0%(153명)로 나타났으며, 학년으로는 1학년 31.8%(108명), 2학년 35.0%(119명), 3학년 22.4%(76명), 4학년 10.9%(37명)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전공 계열에 대한 응답으로 사범계열이 12.9%(44명), 인문사회계열 30.6%(104명), 예체능계열 12.1%(41명), 의학/약학 계열 22.4%(76명), 자연/공학 계열 22.1%(75명)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대해서는 천안 32.1%(109명), 대전 45.3%(154명), 세종 22.6%(77명)로 나타났다. 졸업 후 희망진로에 대해서는 취업 및 창업이 57.1%(194명), 공무원 30.6%(104명), 대학원 및 유학 10.9%(37명)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그릿, 자기결정성, 회복탄력성 요인의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에 대한 적재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그릿, 자기결정성, 회복탄력성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Table 1과 같이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가 GFI, NFI, IFI, CFI는 0.8 이상, RMR은 0.05이하, RMSEA는 0.08이하가 권장 수준이며, RMSEA를 제외한 모든 지수들이 권장수준에 부합하였고, Table 2와 같이 요인부하량(λ)의 값이 0.547에서 0.834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2(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117.008 ($p=0.000$)	17	.047	.921	.883	.898	.897	.094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Cronbach's α
Grit	→ Consistency of interest	0.816	Fix	-	0.776	0.642	0.799
	→ Steadiness of effort	0.566	0.094	7.608			
Self-determination	→ Autonomy	0.834	Fix	-	0.843	0.648	0.828
	→ Competence	0.547	0.078	9.485			
	→ Relationship	0.755	0.076	12.907			
Resilience	→ Self-regulation ability	0.778	Fix	-	0.845	0.648	0.909
	→ Interpersonal skills	0.632	0.085	10.693			
	→ Affirmative	0.758	0.077	12.562			

*** $p<.001$, ** $p<.01$, * $p<.05$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그릿, 자기결정성, 회복탄력성 간 관계 분석을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1	2	3	4	5	6	7	8
1	1							
2	.462**	1						
3	.526**	.284**	1					
4	.295**	.210**	.481**	1				
5	.382**	.337**	.560**	.545**	1			
6	.383**	.267**	.462**	.367**	.466**	1		
7	.517**	.419**	.490**	.277**	.417**	.422**	1	
8	.370**	.250**	.439**	.281**	.420**	.674**	.308**	1

$p<.01$

1-2: Grit(1: Consistency of interest, 2: Steadiness of effort),

3-5: Resilience(3: Self-regulation ability, 4: Interpersonal skills, 5: Affirmative),

6-8: Self-determination(6: Autonomy 7: Competence, 8: Relationship)

그릿, 자기결정성,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결정성의 하위 요인 중 자율성과 관계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7.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릿의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은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에서는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각각 52.6%, 33.7%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결정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유능감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각각 51.7%, 41.9%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은 자기결정성의 유능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0.210~0.674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측정도구들은 모형 안에서 다른 개념보다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과 더 큰 분산을 공유해야 하는데, 이때 도출된 AVE의 제공근 값이 다른 측정변수와의 분산공유정도 보다 높으면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판별타당성은 타 구성개념들 간 상관관계들이 AVE의 제공근보다 적어야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의 계수가 가장 높은 계수는 $r=.674$ 로 이를 제공하면 0.454이다. 이때 0.454는 각 개념의 AVE 값 중 제일 작은 값인 그릿의 AVE값인 0.642보다 작게 나타나 모든 구성개념의 판별 타당도는 있다고 할 수 있다 [32].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으며, χ^2 , GFI, AGFI, RMR, N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Table 4. Research model fit

$\chi^2(p)$	df	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117.008 (p=0.000)	17	.921	.897	.883	.898	.831	.047	.095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알아본 결과, Table 5와 Fig. 2와 같이 그릿은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698, p<.01$), 자기결정성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30, p<.01$). 또한 회복탄력성은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90, p<.01$).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Grit	→ Resilience	.698	.105	7.203***	.000	Sig.	
Resilience	→ Self-determination	.590	.101	5.693***	.000	Sig.	
Grit	→ Self-determination	.230	.110	2.208*	.027	Sig.	

*** $p<.001$, ** $p<.01$, * $p<.05$

다음 Table 6은 그릿과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에 관한 간접효과 분석결과이다. 회복탄력성에 관한 간접효과는 $p<.05$ 의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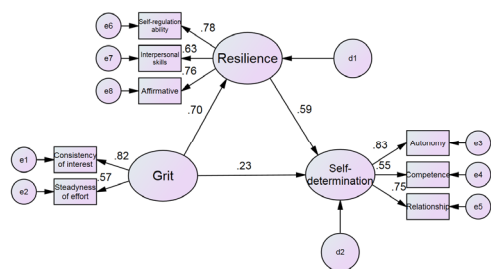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Analysis

Table 6. Indirect effect analysis of self-efficacy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Grit	Resilience	Self-determination	.230*	.027	.411***	.000	.642***	.000

*** $p<.001$, ** $p<.01$, * $p<.05$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간접효과를 확인 한 후, 한 번 더 정확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 [33]한 Sobel-test를 실행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7과 같다.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는 그릿과 자기결정성 관계에서 모두 정(+)적인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Sobel-test result of self-efficacy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Grit	Resilience	Self-determination	4.436***	.000

*** $p<.001$, ** $p<.01$, * $p<.05$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그릿, 회복탄력성,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그릿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그릿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란 외(2017)와 백유성(2015)의 연구[23-24]에서 밝혔듯이, 그릿 요인이 회복탄력성 혹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관계성이 있다고 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과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긍정적 심리자본인 그릿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의 그릿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그릿은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적인 학습동기와 그릿 간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다고 한 김희

명과 황대향(2015)의 연구결과[20]를 지지한다. 이는 내재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그릿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율성이 높아지고, 자기결정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증명하였다. 즉 다시 말해 학생들이 외재동기 및 외부 강요에 의해 개인의 목표를 정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보다, 자율성 보장을 통해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개인의 목표나 행위를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의 내재동기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목표를 정한 후 지속 가능한 능력을 더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은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과 내재적 동기에 대한 상관관계와 내재적 동기와 자기결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힌 최미정(2016)의 연구[27]를 지지한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성취 지향적인 행동을 위해 뚜렷한 생애목적을 가지고 긍정적인 가치를 내재화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대처기술과 책임감을 나타낼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인 것으로 자기결정성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대학생의 그릿과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그릿과 자기결정성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그릿과 회복탄력성 증진을 통해 개인의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결정성이 향상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조절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릿과 회복탄력성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동기적 변인들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격의 자기결정성을 키워줄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릿과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그릿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세 요인의 관계를 명확히 한 본 연구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샘플은 편의표집에 의한 특정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연구의 외적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폭을 넓히고 집단 간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릿은 지속성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변인이

므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졸업, 취업 후에도 그릿과 회복탄력성이 자기결정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2] H. Jung, S. B. Jang, J. K. Tak, "The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emo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job crafting",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Vol.21, No.1, pp.31-51, 2018.
DOI: <https://doi.org/10.24991/kihred.2018.3.21.1.31>
- [3] R. M. Ryan, E. L. Deci,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1, pp.54-67, 2000.
DOI: <https://doi.org/10.1006/ceps.1999.1020>
- [4] J. H. Kim. Grit: To prove potential as a skill, as a result of sexuality, as a result of studying. pp.92-113, Paju: Sum & Parkes, 2013.
- [5] W. Y. Shin, M. K. Kim, J. H.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0, No.4, pp.105-131, 2009.
- [6] K. Reivich, A. Shatte. The resilience factor: 7 keys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pp.25-43, Harmony, 2003.
- [7] C. W. Jung. Theories and issues of moral education. pp.212-236, Seoul: Wooluck, 2013.
- [8] M. S. Kim, S. H. Lee, S. H. Baek, Y. S. Choi,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grit scores and their differences across sex and grad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pp.297-322, 2015.
- [9] S. R. Lee, *Effects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Ph.D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of Seoul, Korea, pp.41-45, 2015.
- [10] E. L. Deci. Intrinsic motivation of Behavior. pp.51-68, NY: Plenum, 1975.
DOI: https://doi.org/10.1007/978-1-4613-4446-9_4
- [11] E. L. Deci, R. M. Ryan.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227-268, Rochester: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2.
- [12] R. M. Ryan, J. P. Connell,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5, pp.749-761, 1989.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7.5.749>
- [13] S. J. Kim, *Dependency, self-criticism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of Seoul, Korea, pp.16-19, 2009.
- [14] A. Y. Kim, "Validation of taxonomy of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6, No.4, pp.169-187, 2002.
- [15] Y. J. Jang,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improvement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ecological self-determination ability*,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Seoul, Korea, pp.42-43, 2014.
- [16] K. Reivich, A. Shatte, *The resilience factor: 7 keys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pp.58-63, Harmony, 2003.
- [17] H. R. Lee, H. I. Cho,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of Korea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16, No.2, pp.161-206, 2005.
- [18] E. L. Cowen, P. A. Wyman, W. C. Work, J. Y. Kim, D. B. Fagen, K. B. Magnus, "Follow-up study of young stress-affected and stress-resilient urban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9, No.3, pp.565-577, 1997.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97001326>
- [19] E. S. Hong,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41, pp.45-67, 2006.
- [20] H. M. Kim, M. Hwang, "Validation of the Korean grit scale for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 Vol.35, pp.63-74, 2015.
DOI: <https://doi.org/10.25020/je.2015.35.3.63>
- [21] E. A. Skinner, "A guide to constructs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1, No.3, pp.549-570, 1996.
- [22] J. L. Lee, D. H. Kwon,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ocus of control, mindset,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11, pp.245-264,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11.23.11.245>
- [23] M. R. Lee, H. W. Lee, J. H. Tak,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gri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pp.491-512, 2017.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7.17.2.491>
- [24] Y. S. Baeck, "The effects of resilien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a focus on members of Gyeongbuk headquarters of KORAIL", *Ordo Economics Journal*, Vol.18, No.4, pp.129-146, 2015.
- [25] E. L. Deci, R. M. Ryan, "The initiation and regulation of intrinsically motiv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pp.9-36, *Achievement and motivation: A social-developmental perspective*, 1992.
- [26] S. S. Luthar, E. Zigler,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A re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61, No.1, pp.6-22, 1991.
DOI: <https://doi.org/10.1037/h0079218>
- [27] M. J. Choi,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creativity :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and intrinsic motivation*,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Korea, pp.38-40, 2016.
- [28] H. E.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formance self-confidence, mastery goal orientation, grit and stress coping styl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erforming arts*, Ph.D dissertation, Jeonju University of Counseling Psychology, Jeonju, Korea, pp.29-34, 2018.
- [29] E. J. Kim,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college freshman's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1, No.3, pp.539-555, 2007.
- [30] J. H. Lee,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and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3, pp.133-154, 2013.
- [31] H. J. Kim, "The rel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s' life stress and well-being :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3, No.4, pp.23-41, 2015.
- [32] C. Fornell,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DOI: <https://doi.org/10.2307/3151312>
- [33]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9,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34] R. M. Baron, D. A. Kenny, "Effects of Grit and Conscientiousness on Academic Performance :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10, pp.143-151, 2019.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오 은 희(Oh eun heui)

[정회원]



- 2017년 2월 : 호서대학교 청소년 문화상담학과 (문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인재개발학과 청소년문화상담학전공 박사과정

<관심분야>

청소년 활동, 코칭, 이벤트

최 인 선(Choi in sun)

[정회원]



- 2013년 2월 : 호서대학교 청소년 문화상담학과 (문학석사)
- 2016년 2월 : 호서대학교 인재개발학과 청소년문화상담학전공 (철학박사)
- 2013년 9월 ~ 2016년 12월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겸임교수
- 2013년 8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분야, 리더십, 코칭

정 철 상(Jung chul sang)

[정회원]



- 2002년 3월 :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지도, 이벤트, 축제